‘시험문제 유출 高’ 입시학원화 현실로

광주시교육청 특감 …교장 등 54명 징계·행정처분 요구
우열반 운영·교과목 선택권 제한·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입시위주 교육 관행 현실서 ‘사립학교 길들이기’ 지적도

광주시교육청이 특정 학생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의혹이 제기된 모 고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 학교가 최상위권 학생을 특별관리해 온 것으로 판단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관리자 중징계를 요구하고 해당 학교를 중점관리 대상학교로 지정,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브리핑룸에서 지난달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이뤄진 특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를 촉발한 지난 1학기 3학년 기말고사와 관련해서는 기숙사 학생들이 주로 활동하는 수학 동아리에 배부된 유인물 중 5문제가 그대로 출제돼 재시험이 치러진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

지난해 1학년 수학 시험에서는 특정 교재에서 8문항, ‘토요 논술 교실’에 제공된 유인물에서 1문항이 출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해당 문항이 방과후학교 ‘수학 최고급반’에서 다뤄진 의혹이 있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학의 경우 2017-2019학년도 시험 중 고난도 197개 문항을 조사한 결과 150개가 문제집, 기출문제와 일치했다. 다만, 해당 문제가 특정 학생에게만 제공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술형 평가에서도 채점 기준표를 출제와 함께 사전 결재해야 하는데도 학교 학업 성적관리위원회에서 기준표를 채점 이후 결재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사가 자의적으로 채점을 진행하고 부분 점수 부여 과정에서 동일한 답이 다른 점수를 받는 등 불공정 여지를 남긴 셈이다.

학교에서는 1-3학년 모두 성적순으로 우열반을 편성하고 기숙사생을 성적순으로 선발했다. 기숙사생은 과목별 방과후 학교, 자율동아리, 토요 논술 교실 등 심화 교육 기회를 얻었다.

또 학교에서는 대학입시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제한했으며, 생명과학 I, 물리학 I·II를 필수로 지정하도록 했다.

다른 일반계 고교에서는 소수만 선택하는 물리학 II를 전체 학생이 이수하면서 상대적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은 내신에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었을 것으로 시교육청은 분석했다.

시교육청은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도 비교과 영역 점수를 무시하고 내신 성적을 중심으로 성적 우수 학생을 대학에 단수 추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교장(파면)·교감(해임)·부장교사 등 6명 중징계, 교사 48명은 정도를 고려해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또 해당 학교를 중점관리 대상학교로 지정해 선택과목 강제 수강, 우열반 편성을 금지했다.

다만 대부분의 일반계 고교에서 입시위주 교육이 관행화한 점을 고려하면 ‘54명 징계 또는 행정처분 사태’는 지나친 대응이라는 평가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이는 수월성 교육을 지양하는 정책에 거슬러 수년간 눈에 띄는 진학 실적을 내온 사립학교 길들이기라는 지적이다.

양정기 시교육청 교육국장은 “성적 상위 학생을 위해 모든 교육과정이 맞춰져 한마디로 학교가 입시 학원화했다”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일반계고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현장 컨설팅, 연수, 고교 정기고사 문항 점검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기자

특정 학생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한 의혹이 제기된 모 고교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가 13일 오전 시교육청 브리핑 룸에서 열려 양정기 시교육청 교육국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GIST, ‘통풍 치료제’ 기술개발

통풍 치료제의 대표적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나노입자가 개발됐다.

한국연구재단은 권인찬·태기융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 연구팀이 통풍 치료제로 사용되는 단백질과 금 나노입자를 동시에 몸 안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했다고 13일 밝혔다.

통풍은 혈액 속 요산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을 때 주로 발병한다. 치료제로는 요산분해 효소를 쓴다.

요산분해 효소는 요산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과산화수소를 발생시킨다.

그런데 과도한 과산화수소는 독성을 지니고 있어서 다양한 부작용의 원인 물질로 작용한다.

연구팀은 요산분해 효소와 금 나노입자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고분자 나노 전달체를 이용해 과산화수소 농도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온도 조절로 크기를 바꿀 수 있는 고분자 나노 전달체에 효소와 금 나노입자를 원하는 비율로 분리해 넣은(포집) 뒤 체내로 보내는 방식이다.

효소와 금 나노입자는 혈액에서 희석되지 않아 과산화수소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동물 실험 결과 효소를 단독 주입하거나 나노 전달체에 포집하지 않은 경우보다 혈중 요산 감소 효과가 2배가량 좋았다. /김종민기자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광복절·한글날 등 공휴일 개방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광복절 등 공휴일에도 회관 학습실을 개방한다.

13일 회관에 따르면 공휴일 개방은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되며 광복절을 포함해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성탄절(12월25일) 등이 대상이다.

회관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으며 시설물 자체점검과 근무인원 확충을 통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이 주는 평화와 감동 재현을 주제로 광주통일관 주관 ‘4·27 남북정상회담 실사모형(디오라마) 기획전’을 9월11일까지 열어 통일에 대한 염원과 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고찰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체험공간과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김종민기자

남구 공무원노조, ‘역사 바로알기’ 추진

영화 ‘봉오동 전투’ 관람·10월 항일 무장투쟁 역사기행

광주 남구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역사문화 탐방을 통해 일본의 과거 행적을 되짚어 보는 우리 역사 바로알기 프로젝트를 연달아 진행한다.

국민 주도로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본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을 빌미로 경제 침략에 나선 일본 군국주의의 과거 행적을 역사문화 운동으로 재조명해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고히 하겠다는 의중이다.

남구청 공무원노조는 13일 “전국에서 ‘보이콧 재팬(Boycott Japan)’ 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상황에서 공무원 역시 국민의 일원이기에 강제 징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경제도발이 중단될 때까지 역사 바로알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청 공무원노조에서 추진하는 역사 바로알기 프로젝트는 역사문화 현장 탐방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노조는 지난 9일 오후 7시 조합원 210명이 함께한 가운데 CGV 광주 금남로점에서 일제 강점기 시절 만주 지역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벌인 독립군의 활약상을 담은 영화 ‘봉오동 전투’를 단체 관람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오는 10월2일부터 5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항일 무장투쟁의 중심지였던 중국 연길과 용정, 백두산 일대 유적지를 답사하는 역사기행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안영석 남구청 공무원노조 지부장은 “일본은 징용 노동자 학대와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하면서 인권을 능멸하고 있고, 사람을 물질보다도 하찮게 여기는 천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우리들은 국가의 주권 수호를 위해 일본에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병내 남구청장도 “우리 사회에 내재해 있는 일제 잔재와 친일 부역자들의 식민주의적 발상이 청산되는 그날까지 우리 남구청 공직자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길이며, 그 길을 함께 걷겠노라고 다시 한 번 맹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문철헌기자

광주 마스터즈대회…농수산물검사소 ‘맹활약’

市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직원들 잔류농약 부적합물 집중수거 등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관리 만전

“지난 5일부터 열리고 있는 2019 광주 세계 마스터즈 수영선수권대회 기간에 정확하고 철저한 검사로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날씨로 식품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농수산물 검사에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검사소 직원들의 각오다.

특히 농수산물검사소는 올해 3월22일 농산물 잔류농약부분에서 호남권 최초로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을 받아 검사시스템의 국제적인 신뢰도와 수준을 확보했다. KOLAS는 세계 110여 국가가 가입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기구로 가입국가간 시험 성적서를 상호 인정하는 제도다.

이를 바탕으로 농수산물 검사소는 여름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열무, 깻잎 등 농산물과 취나물, 당귀잎 등 식약처에서 제시한 잔류농약 다빈도 부적합 농산물을 집중 수거해 검사하고 있다.

검사소는 서부, 각화 도매시장에 경매를 받기 위해 들어오는 농산물과 마트나 재래시장, 로컬푸드 매장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229개 항목을 5시간 이내 분석해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을 유통되도록 하고 있다.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수산물은 압류 폐기해 유통을 차단하고, 전국 관련 기관에 긴급 통보해 다른 지역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농산물 정밀검사는 2개조로 나눠 검사한다. 야간 근무 조는 매일 오전 5시에 경매를 받기위해 들어오는 농산물을 전날 오후 9시에 수거해 심야시간에 정밀 검사를 한 후 결과를 통보한다. 주간 근무 조는 매일 정오 12시에 경매를 받는 농산물과 자치구에서 의뢰한 농산물을 검사한다. 심야 근무 조는 직원 한사람이 여러 장비를 활용해 검사하고 결과 해석까지 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근무 피로도가 높아 연구원에서는 2년 주기로 순환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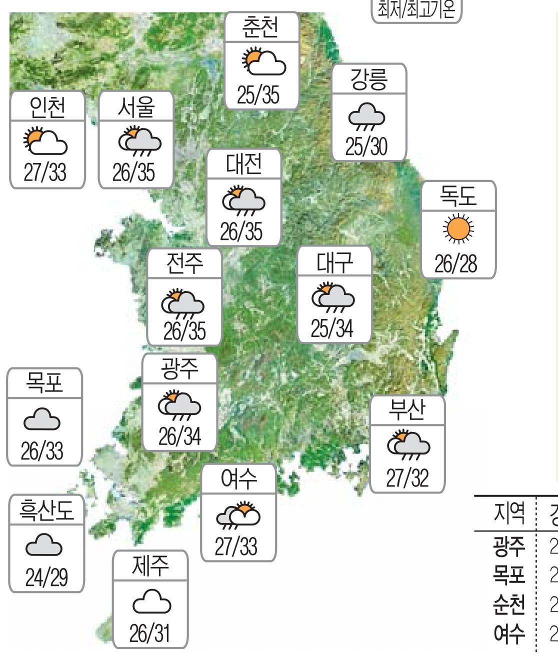
올 들어 지금까지 2천여 건을 검사해 이중 14건의 부적합 농산물을 적발, 580㎏을 압류 폐기해 안전 농산물 유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진희 농수산물검사소장은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검사 능력에 대한 최고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한 만큼 이에 걸 맞는 정확하고 철저한 검사로 농수산물의 안전 유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기자

오늘의 날씨

▶범례 지역 / 날씨 / 최저/최고기온

해뜸 05:51/해짐 19:23
달뜸 18:50/달짐 04:19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40 — 외출시 우산 준비
- 빨래 30 — 실내건조가 안전해요
- 세차 10 — 미루는 것이 경제적
- 운동 40 — 실내에서 스트레칭 하세요

지역	강수확률(%)
광주	20–60
목포	20–30
순천	20–30
여수	20–60

지역	만조	간조
목포	01:46	07:06
	13:35	19:00
여수	08:23	02:35
	21:08	14:26

서해 남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북서–북/0.5–0.5m
	먼바다	북서–북/0.5–1.5m
오후	앞바다	북서–북/0.5–0.5m
	먼바다	북서–북/0.5–1.5m

남해 서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북–북동/0.5–1.0m
	먼바다	북–북동/1.0–2.0m
오후	앞바다	북–북동/0.5–1.5m
	먼바다	북–북동/1.5–2.5m

주간날씨	전라(광주)	서울경기(서울)	강원영동(강릉)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8월 15/목	(26/31)	(26/31)	(25/28)	(26/32)	(26/31)	(26/30)
16/금	(25/31)	(25/32)	(24/30)	(25/31)	(24/33)	(25/30)
17/토	(24/32)	(23/31)	(24/30)	(23/32)	(23/34)	(25/30)

▶날씨안내 : 국번없이131

‘찜통더위’ 광주·전남, 한때 곳곳 소나기

가마솥 더위가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한때 광주·전남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4일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제10호 태풍 ‘크로사’의 영향을 받아 점점 흐려지겠으며 광주·전남은 오후 곳곳에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 오는 지역은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치며 일부 지역은 시간당 2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또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고 많은 곳에서 밤에도 최저기온이 25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등 폭염이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오전 11시를 기해 광주와 광양·순천·나주·담양·곡성·구례·장성·화순·장흥·영암·함평·영광 등 전남 12개 시·군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를 경보로 대체했다.

폭염경보는 이틀 이상 낮 최고 최고기온이 35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일 때 내려진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면서 “낮동안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농·축·수산업 폭염 피해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철헌기자

여름철 세균성 설사질환 조심하세요

市 보건환경연구원, 음식물·식기류 등 위생관리 당부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세균성 병원체로 인한 설사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질병관리본부, 지역 내 협력 병·의원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설사질환 병원체 감시사업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설사증상을 보여 내원하거나 입원한 환자 1천521건 중 685건(45.0%)에서 원인병원체가 검출됐다.

검사 결과 1-4월까지는 노로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성 병원체의 검출률이 31-51%까지 높게 나타난 반면, 4월에 세균성 병원체의 검출률이 6.5%였던 것이 더위가 시작된 5월에는 15.4%,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기승을 부린 7월에는 23.6%로 증가해 하절기에 세균성질환이 유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7월에 검출된 주요 원인병원체는 병원성대장균(47.7%), 살모넬라균(36.9%), 바실러스균(6.2%) 순으로 검출됐다. 최근 7월과 8월에 발생한 집단설사 환자도 병원성대장균과 살모넬라균이 원인균으로 규명돼 설사질환 감시사업의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기혜영 수인성질환과장은 “세균성 설사질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씻기, 음식물 익혀먹기, 물 끓여먹기 등 실천이 중요하다”며 “여름철 고온이 지속되면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학교 등 단체급식소와 일반음식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음식물관리와 식기류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권범기자

북구, 사회적경제기업 워라밸 문화 확산

‘일·생활 균형 캠페인’ 진행

광주 북구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기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워라밸(Work &Life Balance)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3일 북구에 따르면 전날 관내 사회적기업 ㈜에스존(대표 조범준)을 방문해 기업대표 및 임직원들과 함께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기업 일·생활 균형 캠페인’을 실시했다.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기업 일·생활 균형 캠페인’은 일하는 방식과 직장문화 개선을 통해 일과 삶이 조화로운 근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번에 참여한 사회적기업은 결의대회를 통해 ▲오래 일하지 않기 ▲똑똑하게 일하기 ▲제대로 쉬기 등 3가지 핵심과제와 ▲관리자부터 실천하기의 1가지 기본과제를 실천해 나가기로 다짐했다.

특히, 북구는 오는 9월 열리는 일자리 박람회와 10월에 개최되는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과 함께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향후 관내 전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공동체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안정된 직장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환준기자

광주매일신문 기사 제보 jebo@kjdaily.com